

# ‘공사장’ 된 예술의 거리...시민 보행 위험천만

### 5·18 기록관~중앙초 410m 판석 들어내고 아스팔트 교체 중 보행로·우회 표지판도 없이 시민들 중장비 사이로 ‘아슬아슬’ 광주 동구청 “신호수가 안내원 역할...표지판 분실” 황당 답변

광주시 동구가 공동 예술의 거리 일대에서 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보행자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장비를 투입해 도로 판석을 들어내는 등 대규모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회로 안내도 없고 출입 통제조차 제대로 안 돼 시민들이 위험한 공사 현장을 걷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의거리 보·차도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는 본격 공사에 돌입했다.

10여년 전 깔았던 판석 보도가 깨지고 들뜨는 등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아스콘으로 교체하는 공사다.

공사 구간은 동구 급남로 5·18 민주화 운동기록관부터 공동 중앙초등학교까지 410m 구간 도로다.

14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공사 현장에서는 시민들이 가동 중인 중장비 옆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됐다.

별도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은 탓에 판석을 들어내 진흙탕으로 변한 보도를 걷고 있었고, 우회로를 안내하는 표지판도 설치되지 않았다.

공사장 접근을 막는 안전띠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입구에 러버콘(고무 고깔) 세 개를 세워 둔 것이 전부였다.

보행안전 도우미도 현장에는 없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도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 도우미를 배치해 시민 보행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13일 공사를 시작하면서 출입 금지 및 우회로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했는데, 당일 밤 도난을 당했다”고 해명했다. 14일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표지판을 재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보행안전 도우미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비” 예산으로 고용한 신호수가 보행안전 도우미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호수와 보행안전 도우미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서로 역할을 공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호수는 건설기계 등 차량을 대상으로 한 교통 통제, 보행안전 도우미는 보행자를 통제하고 안전 조치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또 보도 공사 중에는 펜스나 테이핑 등을 통해 공사 현장과 보행로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소한 공사현장 인근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의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보행자와 직접 접촉하는 보도 건설 현장은 어느 현장보다 안전이 중요하며, 관할청인 동구청의 안전 의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동구청이 안전 의식을 갖고 세심한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술의거리 보도도 정비공사는 시비 5억원



14일 광주시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보·차도 공사 현장에서 한 시민이 중장비 옆을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을 투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진다. 직선 도로 구간에서는 오는 13일까지 기존 판석 포장을 철거하고 15일까지 아스콘 포장을 덮은 뒤, 10월 중 예술의거리 특징을 담은 그림을 그려넣는 도막 작업

을 할 예정이다. 교차로 구간 공사는 오는 10월 중에 추진되며, 기존 5cm 두께의 판석을 들어내고 20cm 두께의 판석을 덮을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가을비

### 광주·전남 17일까지 비 21일부터 완전한 가을

광주·전남지역에 17일까지 비가 내린 뒤 다음 18일부터 한낮 기온이 누그러지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이번 주말 서해상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자주 내리다 점차 소강상태를 보이고 다음주는 평년수준의 날씨를 보이겠다”고 14일 예보했다.

16일까지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30~100mm이고, 전남 서해안 일부지역에는 최대 120mm 비가 내릴 전망이다. 17일 까지 비가 내린 뒤 18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한낮에는 다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주중에 점차 낮 최고기온이 누그러져 평년의 가을 날씨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주 초에도 기압골이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주 초반인 18~19일까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다”며 “기압골이 통과한 뒤 21일부터는 아침기온 18도 내외, 낮 최고기온은 28도 내외를 보여 완전한 가을날씨가 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전문대 입학정보 한눈에 동강대서 16일 호남권 박람회

광주·전남·북, 제주 지역 전문대학 입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사가 열린다.

14일 동강대학교(총장 이만숙)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강대 체육관에서 ‘2024학년도 호남권 지역 전문대학 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2024학년도 수시 1차 모집에 맞춰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가 행사를 후원하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가 주최·주관한다.

참여 대학은 동강대를 비롯해 광양보건대, 광주보건대, 군산간호대, 군장대, 기독간호대, 동아보건대, 목포과학대, 서영대, 순천제일대, 원광보건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청양대, 한영대, 제주관광대 등 21개 대학이다.

박람회장에서 무료 원서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동강대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통해 공학·자연과학·인문사회·예체능 등 4개 계열 21개 학과에서 951명을 모집한다.

정부지원 사업인 고숙련 일학습병행 ‘P-Tech’ 과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서도 학생을 선발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5·18인권침해 책임 군 수뇌부 사과 안해”

### UN특별보고관 보고서... ‘학살 책임자’ 국제사회에서 거론

“5·18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6월 방한해 광주를 방문하고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 세션에 제출한 대한민국 방문 조사보고서 내용이다. 5·18 진실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사죄하지도 않는 학살 책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거론된 것이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광주시에 있는 여러 기념관과 구 광주교도소 등 추모 장소를 방문했다”며 “5·18당시 교도소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을 추모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며, 국방부 장관은 2018년과 2020년에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지만 인권 유린의 책임자인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실’(Truth) 소재목의 장에서는 5·18민주화운동진상조사위원회는 2019년 설립돼 2023년말 공식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5·18 인권 유린을 추모하는 광주시 등의 노력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광주시는 2015년 5월 18일 기록관을 설립해 항쟁 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유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고 썼다. 교육, 과학 및 문화 기구. 광주에는 5·18 기념공원과 5·18 자유공원도 세워져 있는 점도 쓰였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광주시에 있는 여러 기념관과 구 광주교도소 등 추모 장소를 방문했다”며 “5·18당시 교도소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을 추모하기 위한 광주시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5·18부상자회 전 간부 공금 횡령 발견”

### 황일봉 회장, 기부금 통장 공개...전 간부 “무료 급식소 운영비” 반박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의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 황일봉 회장이 14일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A씨가 5·18부상자회 기부금을 유용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이날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공금 횡령 등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라며 5·18부상자회 기부금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다.

황 회장은 출금된 400여만원이 유력한 정황이라고 제시했다.

황 회장은 “부상자회 법인카드를 한 장인데 이것을 A씨가 가지고 다녔다”면서 “A씨가 기부금을 직원 급여, 전기세 등을 명목으로 이사회 의결없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5·18부상자회 임원과 결탁해 국가보조금이나 후원금도 세탁해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황 회장은 “A씨가 인건비 등 국가보조금을 받은

회원들에게 접촉해 ‘다른 데에 쓸 일이 있으니 받은 돈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차명계좌나 기부금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유용했다”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지난 12일 검찰에 A씨 등 3명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내용을 포함한 진정서를 냈으며, 수사를 통해 A씨의 비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씨는 “기부금 통장에서 400여만원 출금된 것은 무료 급식소 ‘나눔밥집’ 운영비로 사용했고, 나중에 이사회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다”며 “회원들에게 인건비 등을 다시 내놓으라고 한 적은 전혀 없다. 황 회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황 회장은 지난 13일 “5·18부상자회·공로자회 회장은 ‘바지 사장’이었으며, A씨가 두 단체를 운영했다”고 밝힌 가운데 A씨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 2023년 9월호

2023년 8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디자인을 만나다

# meet design

삶을 바꾸는 디자인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가을·문화 축제 만끽

#### 청정 바다 난대 숲길 장보고 섬

기획 '모두를 위한 미술관, 공공조형물' -에필로그

도시의 공공조형물, 일상 속에서 교감할 때 소중해진다

우리 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② 한희원미술관

한희원과 양림동 '예술의 시간' 채운 미술관

#### 와과 맛 함께 완도 여행

'국립난대수목원' 거든난 완도수목원 | 신지 청정바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 슬로시티 청산도, 보길도 '윤선도 원림'  
'안도건강해' 유기농 다시마  
해양바이오투구센터 입주 스마트 아일랜드 완도 더플문

제4회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  
**조병수**  
“미래 도시는 땅과 물과 바람의 흐름을 이어야”

해외문화기행 ⑩ 이탈리아 피렌체  
예술 향기 가득한 중세도시 피렌체 두오모 성당 존재감

호남의 누정 ⑨ 광주 풍영정  
아름다운 풍광서 만나는 옛 선비의 詩文

예향 초대석

특별기획 - 신진남관광역지도 ④

남종화의 산실, 수묵학의 수도가 되다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④

2023목포문화박람회! 목포가 낳은 작가들 조명

황인의 '예술가의 한 끼' ⑧  
호남의 누정 ⑨ 광주 풍영정  
아름다운 풍광서 만나는 옛 선비의 詩文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 ⑩  
극락강 지나는 은하철도 극락강역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⑨  
아일랜드 동쪽상안의 비극·진영 갈등 우리와 닮았네